

여자축구마저...한국, U-17 아시안컵서 북한에 0-7 대패

역대 최다 점수차 패배 기록...9일 인도네시아·12일 필리핀과 맞대결

한국이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17 (17세 이하) 여자 아시안컵 첫판에서 북한에 대패했다.

김은정 감독이 이끄는 여자 U-17 대표팀은 지난 6일 인도네시아 발리 유니티드 트레이닝센터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북한에 0-7로 크게 졌다.

한국은 전반 중반까지는 잘 버텼으나 전반 41분 리국향에게 처음 실점한 것을 시작으로 견잡을 수 없이 수비가 무너졌다.

특히 교체 카드 두 장을 쓰며 변화를 주면서 임한 후반전 시작 2분 만에 3번째 실점을 한 게 치명적이었다.

북한 전일정이 골 지역 왼쪽에서 넘긴 땅볼 크로스가 그대로 한국 골키퍼 우수민(포항전지여고)을 통과해 북한이 3-0으로 앞서나가게 하는 골이 돼버렸다.

전일정은 후반에 2골을 더 넣고 헤트트릭을 기록했고, 리국향과 허경도 이날 총 2골씩을 넣었다.

A대표팀에서도 뛰는 미국 출신 혼혈 선수 케이

시 유진 페어(엔젤시티FC)는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한 채 전반만 뛰고 끝나는(울산현대고)과 교체됐다.

한국은 이날까지 북한과 여자 U-17 대표팀 간 전적에서 1승 1무 6패로 크게 밀린다.

특히 이날 나온 점수는 북한 상대 이 연령대 역대 최다 점수 차 패배 신기록이다. 종전 기록은 '0-4'였다.

이 대회는 8개 참가국이 4개 팀씩 2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1, 2위가 4강 토너먼트를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3위는 오는 10월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U-17 월드컵 출전 자격을 얻는다.

한국은 2010년 U-17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으나, 이후에는 본선에 오르지 못하다 2018년 대회 본선에 진출해 조별리그 탈락했고, 그다음에 열린 2022년 대회에는 다시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북한과 더불어 필리핀, 개최국 인도네시아와 한 조로 묶였다.



지난 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2024 아시아축구연맹 U-17 여자 아시안컵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대한민국 서민정(오른쪽)이 북한 전일정을 상대로 공을 뺏으려고 태클을 하고 있다. <AFC홈페이지 캡처>

북한의 조 1위가 유력하게 점쳐지는 가운데 김은정호는 이날 대패하면서 다음 경기에서 최대한 많은 득점을 올려야 하는 부담을 안았다.

김은정호는 한국 시간으로 9일 오후 8시 인도네시아, 12일 오후 5시 필리핀을 상대로 토너먼트 진출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광주시청 이민정

KBS배육상대회 2위



광주시청 이민정(사진)이 전국육상대회에서 준우승을 기록했다.

이민정은 지난 6일 경북예천스타디움에서 열린 제 52회 KBS배전국육상경기대회 여자 대학·일반부 200m 경기에서 25초20로 2위를 기록했다. 1위는 24초59에 결승선을 통과한 김소은(가평군청)이 차지했다.

'국가대표·꿈나무선수 선발전 및 제30회 대한체육회장배 생활체육 육상경기대회'를 겸한 이번 대회에는 역대 최다인 50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연승 성공 광주FC 상위권 진입 노린다



선두 포항·다카호스 김천 K리그1 초반 판세 주도

포항스틸러스와 김천상무가 프로축구 K리그1 초반 판도를 뒤흔

들고 있다.

어린이날을 끼고 펼쳐진 11라운드를 끝으로 하나은행 K리그1 2024는 울산 HD와 광주FC를 제외한 모든 팀이 11경기씩을 치르며 1라운드 로빈을 마쳤다.

순위표를 보면 시즌 전 예상과 판판이다.

겨울에 선수 영입에 적극 나선 전북현대, 그리고 김기동 감독 체제 속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출신의 제시 링가드를 품은 FC서울이 울산과 3파전을 벌일 것으로 보였으나 이 두 구단은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대신 포항이 7승 3무 1패, 승점 24로 선두를, '승격팀' 김천이 포항에 승점 3 뒤진 3위(승점 21·6승 3무 2패)를 각각 달리고 있다.

포항은 올 시즌을 앞두고 제가, 고영준, 김승태 등 지난 시즌 준우승에 핵심 역할을 한 선수들을 떠나보냈다.

5년 가까이 장기 집권한 김기동 감독이 서울 지휘봉을 잡으면서 박태하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맡은 터라 시행착오도 불가피해 보였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과 정반대다.

12개 팀 중 유일하게 한 자릿수 실점(8골)을 자랑하는 단단한 수비와 경기 종료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더 거칠게 몰아치는, 포기를 모르는 공격으로 선두를 질주하고 있다.

김천은 올 시즌 최대 '다카호스'다.

김현욱(5골), 이종민(3골), 정치인(2골) 등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다양한 공격 루트로 상대를 압박한다.

특히 정재희(포항), 이상현(강원)과 득점 랭킹 공동 1위(7골)에 올라 있는 이동경이 울산에 떠나 김천에 입대해 '앞으로'를 더 기대하게 만든다.

울산은 2-4라운드 2무 1패에 그치며 잠시 흔들렸으나 '디펜딩 챔피언'의 위용을 되찾고 5연승을 내달리고 있다.

현재 7승 2무 1패, 승점 23으로 포항에 1점 뒤진



광주FC 엄지성이 지난 1일 제주 유니티드와의 원정경기에서 슈팅을 시도하는 모습. <광주FC 제공>

2위다. 한 경기를 덜 치른 상대여서 선두를 탈환할 여지는 충분하다.

이동경의 이탈은 아쉽지만, 지난 시즌 득점왕 주민규·마틴아담(이상 3골), 엄원상(2골) 등이 포진한 공격진의 중량감은 여전하다.

반면, 서울은 7-9라운드 3연패를 당하는 등 9위(승점 12·3승 3무 5패)에 머물러 있다. 김기동 감독이 선호하는 템포 빠른 축구가 아직은 자리를 잡지 못한 모습이다.

기대를 모은 링가드는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했다. 간단한 무료 수술을 받고 재활하는 링가드는 2주 뒤 그라운드로 복귀할 전망이다. 그가 서울의 반등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북은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2승 4무 5패, 승점 10으로 10위에 머물러 있다.

홍정호의 부상이라는 변수에 수비라인이 붕괴하다시피 했다. 리그 실점 2위(19골)다.

공격도 안 풀린다. 아심 차게 영입한 스트라이커 티아고는 1골에 그쳤고, 잉어 에르난데스는 시즌 초 부상으로 완전한 몸 상태로 돌아오지 못했다.

지난달 6일 몰러난 단 페트레스쿠 감독의 후임 선임 소식이 한 달 넘게 들려오지 않고 있다.

지난 시즌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겨우 생존한 강원FC와 수원FC가 각각 4위(승점 15·19득점)와 5위(승점 15·11득점)에 올라가 있는 점은 인상적이다.

지난 시즌 '3위 돌풍'을 일으킨 이정호 감독의 광주FC는 6연패 부진 뒤 제주와 대전에 연승을 거두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광주체중 민수영 선수단이 '제21회 이충무공배 전국민수영대회'에서 중등부 종합우승 트로피를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광주체중 제공>

광주체중, 전국민수영대회 중등부 우승

금3·은4·동1 획득

광주체중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충남 아산에서 열린 '제21회 이충무공배 전국민수영대회'에서 총 8개의 메달(금3, 은4, 동1)을 따내며 중등부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혼성 혼합계영 400m에 출전한 강윤호(1년), 서시형·신재이·손호서(이상 3년)는 2분47초79를 기록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혼성 짝편계영 400m에서도 강윤호, 서시형, 손

호서, 손민서(3년)가 출전해 3분59초88에 터치패드를 찍으며 1위 자리에 올랐다.

최성연(2년)은 무호흡잠영 50m에서 19초60으로 금메달을 거머쥐었고, 표면 50m 경기에서 21초81로 은메달을 획득했다.

서시형은 남중부 표면 100·200m에서 각각 45초69, 1분42초92의 기록으로 2개의 은메달을 추가했다. 신재이는 여중부 표면 100m와 200m 경기에서 각각 2위(46초67), 3위(1분47초45)를 기록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광주체고 문건영, 체조 국가대표 선발

광주체고 문건영(3년)이 성인 선수들을 상대로 개인종합 1위를 기록하며 시니어 체조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고등학교생인 문건영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열린 '2024 국제 아시아선수권대회 파견선발 겸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2024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김한솔(서울시청), 이준호(천안시청) 등 성인 선수들과 기량을 겨뤘다.

문건영은 선발전 1일차 경기에서 80.800점으로 개인종합 1위를 기록했고, 2일차 경기에서



81.501점을 획득하며 이를 연속 개인종합 1위에 올랐다.

그는 통합 합산에서도 종합 1위를 기록하며 태극마크를 달았다.

문건영은 "꼭 국제 아시아 선수권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해 광주의 자랑스러운 학생선수의 위상을 드높이고 싶다"고 전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년 광주상설공연(5월)
 일시 : 2024-05-04(토) ~ 2024-05-26(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광주시립발레단 제137회 정기공연 「DIVINE」
 일시 : 2024-05-24(금) ~ 2024-05-25(토)
 05.24.(금) 19:30
 05.25.(토) 15:00, 19: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415-5502 / 062-522-8716